

충청남도 지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오 석 민(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 I. 서 론
- II. 충청남도 지역박물관 현황
- III.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 IV. 결론에 대신하여

I. 서론

이제 문화는 산업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부문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영화, 만화, 음악 등의 분야에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산업의 시대가 되고 있다.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민족고유’ 또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예산을 무작정 투자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박물관이라 하여 빗겨갈 수는 없다. 사라진 과거의 유산을 붙들고,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생존전략은 머지 않아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관 부문에서 파급효과를 낳아야 생존이 보장될 수도 있다.

특성을 살린 전문 박물관의 출현, 그리고 이벤트를 동반한 특별전의 개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현재까지 주류가 아니며, 더욱이 지역사회에서는 미미하기만 한 듯하다.

물론 박물관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설립된 박물관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관심을 유인할 수 있고, 나아가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 될 것이다.

II. 충청남도 지역 박물관 현황

2002년 현재 충청남도에는 국립박물관 5개소, 공립박물관 1개소, 대학박물관 4개소, 그리고 10개소의 사립박물관이 등록되어 있다. (아래 표 1. 참조) 여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향토사료관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2002년 현재 향토사료관 가운데 등록된 경우는 청양군 뿐이다. 우선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 현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충청남도 등록 박물관 현황>

구분	박물관명	소재지	소장유물	개관년월	건평
국립	현충사유물관	아산 염치 백암리	이순신장군 유물 144점	1960. 4.	전시실 558㎡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부여 동남리	백제 유물 등 8,764점	1971. 9.	680평
	국립공주박물관	공주 중동	무령왕릉 출토유물 등 9,206점	1973. 10.	1,915㎡
	칠백의충기념관	금산 금성 의총리	유물 159점, 영정 1점, 기록화 7점	1976. 9.	전시실 184㎡
	독립기념관	천안 목천면 남화리	68,297점	1987. 8.	54,672㎡
공립	보령석탄박물관	보령 성주면 개화리	석탄·광산 자료 등 2,500점	1995. 5.	1,600㎡
대학	공주교대박물관	공주 봉황동	역사, 고고, 미술, 공예, 민속 등 863점	1975. 5.	293㎡
	호서대박물관	아산 배방면 세출리	역사, 민속 등 273점	1995. 3.	200㎡
	건양대박물관	논산 내동	통신장비, 관련 서적 등 2,685점	1996. 4.	224㎡
	공주대박물관	공주 신관동	백제 유물 등 10,595점	2001. 1.	904.3㎡
사립	온양민속박물관	아산 권곡동	등록자료 410점, 미등록 20,000점	1978. 10.	5,321㎡
	연기향토사료관	연기 서면 청라리	민속품 등 1,425점	1996. 8.	217㎡
	공주민속극박물관	공주 의당면 청룡리	민속극 자료 2,930점	1996. 11.	500㎡
	북권박물관	천안 안서동	북권 관련 자료 1,932점	1997. 6.	201㎡
	한국고건축박물관	예산 덕산면 대동리	건축모형 등 163점	1999. 6.	4,791㎡
	수덕사근역성보관	예산 덕산면 사천리	불교 관련 자료 995점	1999. 9.	456㎡
	해송민속박물관	공주 반포면 온천리	민속자료 121점	2000. 12.	248.2㎡
	태영박물관	금산 남이면 하금리	향토유물 110점	2001. 4.	238.9㎡
	홍성민속박물관	홍성 구항면 황곡리	민속자료 720점	2001. 4.	265.1㎡
	웅진교육박물관	공주 우성면 내산리	교육교재 등 760점	2001. 10.	590㎡

<표 2. 충청남도 등록 기타 전시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소장유물	개관년월
안전기념관	서산 지곡 화천리	18점	1991. 12.
금산인삼전시관	금산 금산 중도리	200점	
천일민속관	부여 부여 교구리	1,380점	
이상재선생유물관	서천 한산 종지리	200점	
모덕사유물전시관	청양 옥면 송암리	7점	
청양향토사료관	청양 청양읍 읍내리	152점	
홍주문화의집	홍성 홍성읍 오관리	81점	
김좌진장군유품전시관	홍성 갈산면 행산리	26점	
예산보부상유품전시관	예산 덕산면 신평리	27점	
윤봉길의사기념관	예산 덕산면 사향리	58점	
임성중학교향토관	예산 오가면 역탑리	1,450점	1997. 10.
남이홍장군유물관(모충관)	당진 대호지면 도이리	331점	

1) 박물관 건립 현황

‘문화산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서는 박물관 운영과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문화 콘텐츠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박물관의 건립·운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의 개관 시기를 살펴보면, 총 20개소 가운데 13개소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설립된 경우는, 부여와 공주의 국립박물관, 그리고 현충사·칠백의충·독립기념관 등 전시 기능을 가진 사적지 내의 기념관이 있을 뿐이다. 온양민속박물관의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에 속할 뿐이다. 그 외의 공립(1개소), 대학(4개소)¹⁸⁾, 사립(10개소 전체)가 1995년 이후 건립된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정책 결정자들이 문화적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관련 연구자들이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분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가능한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박물관 건립이 정치적 배려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박물관 건립을 정치적 치적으로 남기기 위하여 건립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그런 경우에, 소장 유물이나 전시계획 등 내실을 살

18 대학박물관의 경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개관시기는 다를 수 있다.

피기 전에, 우선 건물 등 외양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

그 결과는 박물관 건립 취지의 훼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 한 번이라도 몇 년에 걸쳐 차분히 유물 수집을 실시한 후에, 그에 적합한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전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적당한 규모와 내부 시설을 갖춘 건물을 세웠으면, 원이 없겠다.’는 한 박물관 관계자의 말에서 웅변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 연구자들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사전 준비가 착실하다면, 촉박한 박물관 설립계획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박물관 건립을 건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박물관 재정 여건

현재 대부분의 박물관 운영을 통한 자립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사립 박물관 가운데 성공적인 평가를 받던 온양민속박물관의 좌초는 현 실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9개소의 박물관 가운데 흑자 운영을 하는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 재정 현황>¹⁹⁾

박물관	내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보령석탄박물관	수입	77,787,000	68,185,000	70,417,000	92,286,000
	지출	119,459,000	95,740,000	159,979,000	110,900,000
온양민속박물관	수입	474,397,000	547,728,000	449,621,000	-
	지출	597,956,000	650,078,000	596,889,000	-
연기향토박물관	수입	23,000,000	19,800,000	21,200,000	30,000,000
	지출	23,000,000	19,800,000	21,200,000	30,000,000
수덕사근역성보관	수입	-	10,268,449	20,732,371	16,797,476
	지출	-	19,800,000	약 64,800,000	약 64,193,975
웅진초등교육박물관	수입	-	-	600,000	3,100,000
	지출	-	7,000,000	16,500,000	13,500,000
안건기념관	수입	-	-	-	-
	지출	-	-	-	-
임성중학교향토관	수입	-	-	-	-
	지출	-	-	-	-
고남패총박물관	수입	-	-	-	7,400,000
	지출	-	-	-	약 65,000,000
태안문화원	수입	-	-	-	-
	지출	-	-	-	-

19 추정치 포함. 태안 패총박물관의 경우, 2002년 10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나, 이미 개관을 한 상태이다.

태안문화원 자료관, 임성중학교향토관, 안전기념관의 경우, 예산과 지출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다. 안전기념관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 1명이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 급여조차 서산시청에서 지급되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그런 관계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다.

각 시·군 문화원에 부설된 향토(사료)관 역시 태안군과 비슷한 형편이다. 예산을 수립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시는 물론이요, 전시가 가능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임성중학교향토관의 경우, 옛 교사 건물에 재단 이사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수장하고 있을 뿐이며, 전시는 물론 내부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의 처지는 이와 비슷하다. 해송민속박물관은 카페 한편에 민속용구를 장식품으로 진열하는 데에 불과하다. 2001년에 개관한 태영박물관, 홍성민속박물관, 웅진교육박물관의 경우, 단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소수의 유품을 소장한 채, 틈이 나는 대로 가족만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친다.

지역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목되는 사례는,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립 박물관, 그리고 공주민속극박물관이나 보령석탄박물관처럼 활성화된 사립 박물관이다.

보령박물관의 경우, 수입 내역 전액이 입장료 수입인데, 1999~2002년 사이 평균 77,169천원으로, 다른 박물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르고 있거니와, 폐광의 갯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단순히 관람료 수입만으로 박물관의 수지를 맞추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7개 박물관의 관람객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관람객 동향>

단위 : 명

박물관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보령석탄박물관	213,155	188,070	195,357	194,302
온양민속박물관	403,000	405,000	373,000	
연기향토사료관	2,000	3,400	6,000	12,000
공주민속극박물관	12,000	16,000	20,000	25,000
수덕사근역성보관		7,276	23,247	1,800
웅진교육박물관			2,500	6,000
안전기념관	8,000	10,000	11,000	12,000
임성중학교향토관	750	680	720	420
고남폐종박물관				17,180
태안문화원	2,000	3,000	3,000	3,000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충청남도에서 관람객이 많이 찾는 박물관은 온양민속박물관과 보령 석탄박물관이며, 입장료 수입 또한 마찬가지이다. (두 박물관의 수입은 전액 입장료 수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입장료 수입은 <표 3>을 참조할 것)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온양민속박물관의 경우, 최근 일시 문을 닫았다가 재개관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가 있다.

3) 박물관 인력 현황

연구 인력의 부족을 논하는 것은, 박물관은 물론 모든 문화관련기관의 공통된 어려움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공·사립 박물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현재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의 인력 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 인력 현황>

박물관	관장	관리직	연구직	기타
보령석탄박물관	1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장)	1	1	기능2, 일용1
온양민속박물관		11	1	3
연기향토사료관	1	1		1
공주민속극박물관	1	2	5	
수덕사근역성보관	1	1	1	3
웅진교육박물관	1	1	1	2
안건기념관				1(기능직)
임성중학교향토관				
고남패총박물관			1	1
태안문화원	1	1		1

특히 연구직의 경우, 학예사 1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박물관의 전문성을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장 자치단체 또는 개인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대규모의 인력 충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현재 동원 가능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직하는 것이 차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 등의 전문 연구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토연구단체 등과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4) 소장·전시 유물 현황

향토연구자, 나아가서 사설 박물관 운영자의 노고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공립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박물관 개관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선 지적할 부분은 소장 유물의 절대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선 각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개 박물관 가운데 10개 박물관에서 1,000점 미만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타 전시시설 12개소 가운데에서는 1,000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는 경우는 단 2개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표 2> 참조) 개인 소장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비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 전시는 반드시 박물관 자체의 소장 자료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동안 현지에 거주했다는 점을 십분 이용한다면, 향토연구자들의 안면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문중에서 소장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욱이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자료를 보관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스스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길은 많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허술한 기초조사와 자료 수집에서 발견되는 무원칙성은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원래의 소재지를 잃어버린 속칭 ‘번지 없는’ 유물들을 가리켜 박물관에서나 전시되는 것이라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박물관 자체가 드물었던 시기에나 통용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던 물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전시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은 모순에 불과할 뿐이다.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무원칙인 백화점식의 전시방법이다. 마치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동일한 기념품을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박물관에서나 대동소이한 유물들을 관람하게 된다면, 일반인은 박물관에서 발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고증과 해제 작업이 기초작업이라 한다면,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부각하는 노력은 특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특화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또는 강화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원화 또는 상품화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핀 연후에, 주제를 가진 박물관으로 개관하고, 지속적으로 차별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주민속극박물관, 보령 석탄박물관, 고남 패총박물관 등은 최소한

출발점에서 만큼은 차별성을 갖춘 사례라 할 것이다. 전시기법 등 일부 미비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심분 활용하려는 기본 방향만큼은 옳바르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는 다양한 전시기법을 이용하고, 주민들과 밀착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평생에 걸쳐서 관련 유물을 수집하여 테마박물관을 건립한 공주민속극박물관의 사례는, 박물관의 유물 수집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공주민속극박물관 소장 유물 현황>

분류	탈	인형	악기	농기구	기타	계
총계(점)	467	289	132	785	1,257	2,930

5)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 정체성은 주민과 함께 했을 때,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일반의 수요가 늘어간다는 점에서도, 주민 참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보물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박물관 관계자 가운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전 또는 이벤트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도 아니다.’ 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본인은 이러한 태도야말로 스스로 구태를 벗한 것으로, 일반에게 접근하는 박물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 소재 박물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논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우선 특별전을 포함한 연구·전시·조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운영하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7.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의 특별활동 현황>

박물관	특별전	자료발간	연구조사활동	교육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기타
보령석탄박물관	-	팸플렛(4회)	-	-	-	-
수덕사근역성보관	-	1	-	1	-	-
연기향토박물관	1회(매년)	4	3	수시	수시	3
온양민속박물관	23	11	2	-	-	4
태안문화원	-	-	-	-	-	-
고남패총박물관	-	-	-	-	-	-
안전기념관	-	팸플렛(연1회)	-	-	-	1
웅진초등교육박물관	1	4	-	-	-	-
임성중학교향토관	-	-	-	-	-	-

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펴는 곳은 온양민속박물관이다. 지역에 소재할 뿐 전국 각지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중흉배비교특별전(韓中胸背比較特別展)을 개최하는 등 활동 영역 또한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온양민속박물관을 제외한 경우의 활동은 미미한 편이다. 다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사립 연기향토박물관의 활동이 눈에 띈다. 연기향토박물관의 경우에도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공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래 <표 7>과 같은 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표 8. 연기향토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발간자료				
	제목	연도	부수	
1	연기향토문화	1996	1,000	
2	성당사지지표조사	1997	500	
3	금남면향토지	1996	1,000	
4	전의면향토지	1999	1,000	
연구조사활동				
	주제	연구기간	참여인원(명)	
1	연기군내 사지, 사찰	10개월	7	
2	연기군내 산 조사	4개월	5	
3	연기군내 민속	연 속		
교육 프로그램				
	시작연도	시기	주제	참여인원
1	1996	수 시	연기군내 문화유적 소개	500
2	1997	10	학술 세미나	700
답사 프로그램				
	시작연도	시기	주제	참여인원
1	1996	수 시	연기군내 문화유적 답사	45
기타 행사				
	시작연도	시기	주제	참여인원
1	1997	10월	백제 고산제	700
2	1998	3월	덕진 산성제	1,000
3	1996	매년 4월 20~25일	우리집 가보전시회	3,000

연기향토박물관의 경우, 특정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관내 역사·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두루 섭렵하고 있다. 특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기군 내에 박물관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정 기간 동안 일종의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분야를 강화하여야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의 모든 활동을 관장 혼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황에 따라 진폭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 박물관에서 공통적으로 처한 현실일 것이다.

한편 공주민속극박물관은 보다 전문화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공주민속극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발간자료				
	제목	연도	부수	
1	계룡산 산신제 조사보고서	1997		
2	가회리 장군제 조사보고서	2002		
특별전				
	주제	연도		
1	진주오광대 탈 전시회	2002		
2	우리 나라 나무 탈 전시회	2002		
교육 프로그램				
	시작연도	시기	주제	참여인원
1			탈 만들기	
2			종이 공예품 만들기	
3			인형 만들기	
기타 행사				
	시작연도	시기	주제	참여인원
1	1996		공주 아시아 1인극제	
2	1997		설위설경제	
3	1999		청소년 어울마당	

현 시점에서 볼 때, 공주민속극박물관은 지역 정체성 또는 공주만의 고유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속극에 많은 애정을 기울였던 설립자가 고향에 박물관을 세웠을 뿐이다. 그러나 박물관 운영이 성공한다면, 장차 공주의 특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바, 공주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정한다 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러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단순한 전시 외에, 충청남도 박물관의 활동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이러한 활동을 염두에 두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박물관이 일종의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부문일 것이다.

Ⅲ.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박물관은 충분히 지역문화의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관이다. 지역을 책임졌던 기관장의 기념비적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공간으로, 그리고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기념비적 건축물로서의 의의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유물 수장고로

서의 기능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역사적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소실된 우려가 큰 문화유산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지역민에게 한발 더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일부 미술관에서 소장 작품을 민간에 대여하는 경영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민에게 다가간다고 하여, 박물관 운영이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기초조사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인 유물의 확보, 지역 문화의 성격 규명 등의 절차를 거친 연후에, 박물관의 입지 선정, 철저한 전시계획의 수립, 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시행 등으로 보다 큰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문화는 반드시 선사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근·현대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자치단체의 시도가 참신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은 고고학적 유물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은 곧바로 그 지역의 경쟁력이다. 지방화 시대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기왕의 전시방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박물관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반에게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곽 관련 박물관을 건립할 때, 성곽 시설 일부를 전시 유물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축제화된 박물관 운영, 답사를 넘어선 체험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초자료의 조사와 집대성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수반하는 기초연구가 불가능하다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연구결과의 통합관리이다. 개발사업에 따르는 지표조사, 문화재청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의 사업, 국사편찬위원회 등 중앙기관의 조사·연구 활동 등은 모두 관련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조사위원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단지 수집된 자료를 촬영하고 중앙으로 발송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것이다.

예산 부족 등으로 관련 유물을 매입하기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소장처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기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를 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지에 정통한 향토연구자의 경우, 관련 유물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향토연구자와 외지 전문연구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또는 문중 등과의 협력관계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협력의 기반 위에서 지역 문화의 성격 규명, 그리고 박물관의 기본 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나비채집식의 접근방식은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지역과 분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보충하는 작업이 곧 자료의 집대성 과정이 될 수 있다.

집대성 작업은 미래의 위탁 관리, 매입 등을 통한 상설 전시, 특별전 개최의 기초자원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소위 문화컨텐츠의 한 부분을 점하여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역사문화원 또는 도사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전도에 걸친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은, 그 기관의 장기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3) 박물관의 특화 방안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경우, 우선 그 지역의 종합적 성격에 관심이 갈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지역사회의 문화 주제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승되는 자료의 성격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문화의 주제라면, 박물관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우선 지역문화 자체를 박물관화시킬 수는 없다. 결국 특정 아이টে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문화항목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시·연출이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심지어는 자원의 소재지를 떠날 수 없는 자원의 경우, 단지 외부에서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경쟁력을 못 갖출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아이템이야말로 경쟁력을 갖춘 주제가 될 것이다. 금산 인삼전시관, 보령 석탄박물관, 예산 예덕보부상유품전시관 등은 그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등등의 박물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근·현대 민속신앙과 신흥종교의 요람이었던 신도안 지역과 연계한 종교박물관
- 호서 유학의 근거지였던 회덕·연산·노성의 유교자원을 활용한 유교박물관

- 경허·만공·만해, 그리고 김일엽, 나혜석, 한성준, 이응로 등 근·현대 인물의 자취가 남은 수덕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물박물관
- 서산마애불과 보원사지 등 내포불교유적이 산재한 지역의 불교박물관
- 은산별신제와 한산모시라는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저산팔읍박물관
- 삼교천변을 따라 산재하는 내포교회의 유적을 활용하는 박물관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들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군과 향토연구자들에게 있어서, 현 시점은 이러한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유품들을 확인·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인 듯하다. 이러한 노력은 박물관 신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원 내의 향토사료관을 포함한 기존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특화를 통한 변신의 노력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테마를 발굴하였다 하더라도,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외부인의 관람이 많았을 때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특히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박물관도 머지 않아서 박물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박물관 운영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 부문에서 연계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삭막한’(?)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2년 개관한 삼교호 함상공원의 사례는 성패를 떠나서 참신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주제별 전시관과 입체영상관은 물론이요, 식당·오락실·카페까지 갖춘 종합위락공간으로 개관하였고, 향후 군함테마공원, 해양테마공원, 종합해양리조트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미래박물관의 한 형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겸하는 전시시설 또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옹기 등 향토유물을 전시하는 태영박물관의 경우,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로 인하여 청중에게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함상공원처럼 지역적 전통과 무관하거나, 태영박물관처럼 단순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장식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그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적 전통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의 패총 유물을 전시하는 고남 패총박물관의 경우, 전통 한선(韓船)을 포함한 최근의 민속어구까지 포함하는 전시, 그리고 갯벌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안면도의 역사적 전통을 통시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V. 결론에 대신하여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받고, 기초조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차선책을 모색하고, 또한 상황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마저 없다면, 작은 실천마저 불가능할 것이다. 큰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업을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문화연구와 박물관 설립에 대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문화 연구결과의 집대성 작업
- 주요 유물에 대한 정리와 해제 작업
- 최소한의 유물 수장시설의 확보 또는 지원
- 관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 관련 주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등등

향토애로 무장한 채 수 십년 동안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고 유물을 수집하여 온, 사립박물관 운영자를 포함한 대다수 향토연구자들에게는 이러한 최소한의 지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당국자의 관심을 기대하는 바이다.